

**오는 10월 26일에 '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 갖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회장 金炳洙)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단련은 물론 과학기술단체간의 유기적인 연합을 위하여 '제21회 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를 오는 10월 26일 장충테니스코트에서 개최한다. 경기는 복식이며 회원단체 또는 관련기관의 임직원 및 회원이면 참가할 수 있고 노년부, 장년부, 청년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과총 총무팀 02-553-2181(내선번호 112, 116)

**제15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개최**  
**대한수학회**

대한수학회(회장 程東明)에서는 '제15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The 15th Korean Mathematical Olympiad)'를 2001년 11월 4일(일요일) 개최한다. 응시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2002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를 원하는 중학생은 고등부 시험을 보아야 한다. 시험장소는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이다. 문의사항은 02)565-0361

**대한토목학회 창립 5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회장 張承弼)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Coex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 후 토목건설 기술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토목공학 전 분야에 걸쳐 총 27명의 초청 강연을 듣는 본 심포지엄은 동서 또는 남북간의 갈등으로 고난을 겪었던 국가들과 한반도의 통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건설분야 동료들이 참석한다. 이를 통해 주변국가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미래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 계획, 설계, 유지관리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문의사항은 02)407-4115

**ISC 2001 개최**  
**한국센서학회**

한국센서학회(회장 丁炯鎭)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ISC 2001(International Sensor Conference)'를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회관에서 개최한다. 센서분야는 미래 과학기술분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행사에는 세계적인 석학 10여명이 초청되고 이와 함께 1백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053)953-5106

**사이언스대회 및 풍성한 과학잔치 열려**  
**국립중앙과학관·국립서울과학관**

대전 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가을 사이언스대회'를 10월 13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 우리나라 전통 과학에서부터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초·중등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펼치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문의사항은 042) 601-7937~40

한편 서울에 있는 국립서울과학관에서는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과학 짝 큰 잔치'를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립서울과학관에서 개최한다. 학생과 과학탐구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시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 곳에 모여 신나는 과학실험을 직접 체험해보고 즐기면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내에는 부분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벤트로는 과학영화도 상영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02)745-4464, 02)766-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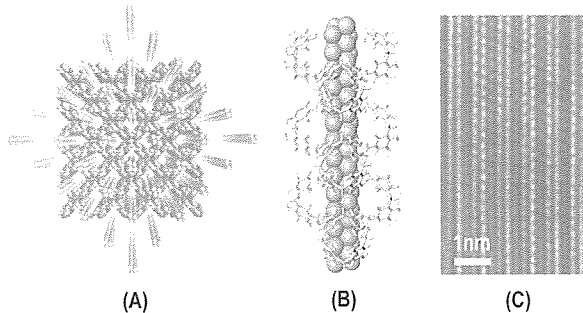
**Brain Pool 활용자 정영섭박사**  
**한국인 최초로 加 정부서 국민 훈장 수여**

캐나다 몬트리올대학에서 유전학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영섭박사(64)가 한인 최초로 캐나다 정부로

부터 '국민훈장'을 받게 돼 화제다. 과총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제도(Brain Pool)에 의해 초빙과학기술자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卜成海) 항생물질연구실(연구 책임자 김성욱실장)에서 '길항미생물 Bacillus의 분자육종을 통한 생물농약 소재의 개발'의 과제로 연구 중에 있다.

정박사는 지난 8월 22일 캐나다 정부가 수여하는 1백 4명의 국민훈장 서훈 대상자 중 '과학분야' 수상자에 선정됐다. 이번에 정박사가 받은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캐나다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한국인이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동양인으로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정박사는 "그동안 한국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 온 것이 오늘과 같은 영예를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042-860-4565)

### 세계적 극미세 나노線 국내개발 포항공과대학교



(A) 유기 나노튜브에 둘러싸인 나노선을 위에서 본 모습  
(B) 은(silver) 원자로 구성된 나노선 구조  
(C) 나노선의 전자현미경 사진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가장 가늘고 집적도가 높은 nano선(線)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과학기술계의 나노기술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포항공과대학교(총장 鄭盛基) 김광수교수(화학과)와 홍병희박사과정은 단면이 은원자 2개로 이루어진 0.4나노미터 굵기의 나노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선 집적도 보다 2백배 이상 높은 데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1나노미터보다 더 가늘게 만들어져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및 미세 전자소자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 10월 12일자에 표지논문으로 실릴 예정이며 이 잡지가 이날 이례적으로 인터넷으로 속보를 띄우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다. 김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나노선은 지금보다 수백만배 성능이 뛰어난 나노 소자는 물론 그동안 꿈으로 여겨졌던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하의 분리현상 등 물리학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도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자치단체 정보화 賞 제정

#### 행정자치부·전자신문

행정자치부와 전자신문 공동으로 '지방이 강해야 나라가 살고 선진 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정보격차 해소의 전위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정보화 賞'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정보화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세운 관계자들을 발굴해 '정보화 역군賞'도 함께 시상한다. '자치단체 정보화상'과 '정보화 역군상'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백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수준 측정결과에 따라 대상 지자체 및 유공자를 선발하고 행정부와 전자신문 등이 위촉한 각계 심사위원들이 대통령상을 최종 확정하여 2002년 2월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화상을 수상하는 지자체에는 예산 배정시 우선적으로 정보화 예산을 책정해 줄 방침이다. 이 상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풀뿌리 정보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